

판

KT노동조합과 조합원이 함께 만드는 '판'에서
즐겁게 일하는 조합원의 모습을 그려가는
소식지가 되고자하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판

VOL. 13
KT노동조합 소식지



코로나19 극복,
KT노동조합과 함께!

강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을...

봄은 어김없이 제 소명을 다하기 위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며 성실히 달려갑니다.

노동조합 13대 집행부의 봄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월 11일, 2020년 정기 지부대회에서
271명의 대의원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새 일꾼으로 선출되어
조합원을 위한 힘찬 첫 발걸음을 시작했습니다.
함께 고민하며 열정으로 행동할 이들은 이제
노동조합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입니다.

새해 시작이 순탄치는 않습니다.
‘코로나 19’사태가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국가적 비상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전사적인 역량을 결집해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현장에서 이 엄중한 상황을 이겨내고 있는
조합원들의 노고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조합원의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판단으로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행사 개최를 자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뜨거운 결의는 결단코 멈추지 않습니다.
올해는 노동조합이 실질적인 경영에 참여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향을 세우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보다 강해진 조직력을 바탕으로 역량을 집중시키겠습니다!
나아가 새로운 변화의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조합원들의 기대에 다시 한 번 부응하겠습니다!

Contents

KT노동조합 소식지 vol. 13



04 KTTU NEWS
주요 단신 뉴스

08 기획특집
세계 여성의 날 112주년 특집
- 근대 여성운동의 역사와
투쟁의 선구자들

12 Focus I
2020년 정기 지부대회 개최

14 Focus II
2020년도 정기 지방본부
대의원대회

16 Check in
코로나19 A to Z

18 현장속으로
코로나19 극복,
KT노동조합과 함께!

22 KT, KT人
재택근무 우수사례 공모전

24 Inside
2020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

28 이슈&사회
공유경제,
성공과 몰락의 기로에 서다

30 [전문가 칼럼] 노동 이슈通
불확실성의 늪에 빠진 경자년
노사관계

32 카툰
코로나19 관련 노동관계법
주요 Q&A

34 독자 후기 및 퀴즈
독자 당첨자 안내

판

‘판’은 일이 벌어진 자리 또는 그 장면을 뜻하는 명사로, KT노동조합과 조합원이 함께 만드는 ‘판’에서
즐겁게 일하는 조합원의 모습을 그려가는 소식지가 되고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발행인 | KT노동조합 위원장 김해관 편집인 | KT노동조합 조직실장 최장복 발행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90 KT노동조합 031-727-2840
발행일 | 2020년 3월 27일(격월간) 제작 및 디자인 | KT그룹희망나눔재단 02-3414-2053 인쇄 | (주)삼립인쇄 02-469-7119

KTTU

N E W S

KT TRADE UNION NEWS

VOL. **13**
2020 February & March



2020년 춘계 체육행사 일정 연기안내

코로나19 감염병 사내 확산 방지를 위해 2020년 4월 예정된 춘계 체육행사를 잠정 연기하고 코로나19 안정 시점으로 시행일정을 조정한다.

- 변경시행 : 2020년 상반기 (~6월) 내
- 시행결정 : 코로나19 상황 안정 시점에 노사협의로 결정

2020년 상반기 개인연금저축 금융기관 계좌이동 및 상품변경 안내

- 신청기간 : 03.26(목) ~ 04.10(금) 18시까지
- 대상금융사 : 현재 회사에서 지원중인 연금저축 기관 限
- 신청방법
 - 금융기관을 통해 계좌이동/상품변경을 신청 후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해당 거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ERP에 등재
 - ※ 증빙서류 종류 및 지원 가능한 금융사 목록, 주의사항 등은 노동조합 홈페이지 자료실 [문서정책] 참조

2020년 1차 퇴직연금 중도인출 시행

2020년도 1차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

- 신청대상
 - 퇴직연금제(DB형 또는 혼합형) 가입 직원 중 법정중도인출 사유를 충족하는 직원 (계약직 제외)
 - 연대보증 복지기금 대부자는 보증보험 대체 또는 전액 상환시 신청가능
 - ※ 퇴직연금 가입유형 확인 : ERP > HR > 개인업무 > 급여 > 퇴직금 > 퇴직연금관리
- 추진일정
 - 금융기관별 전환 신청접수 : ~ 04.08(수)까지
 - DC/혼합형 전환예정일 : 04.29(수)
 - 중도인출 가능일 : 5. 7(목) 이후(금융사별 상이하므로 신청 금융기관에 일정 확인 필요)
 - ※ 자세한 사항은 노동조합 홈페이지 자료실 [문서정책] 참조

제1차 중앙상무집행위원회의 개최

KT노동조합은 3월 16일(월) 2시, 중앙상무집행 위원회의를 열고 2019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안), 202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안), 규약 개정(안) 및 지방본부 통·폐합(안) 등 전국대의원 대회에 제출할 안건의 중점추진사항을 밝히고 이를 원안대로 통과했다. 특히 ‘지방본부 통·폐합’과 관련하여 노동조합 김인관 조직1국장은 “전국 각 지역별로 12개 지방본부(본사포함)를 유지하는 현 제도는 지방조직간에 조합원 수의 극심한 편차와 조직운영에 대한 불균형 및 조직관리의 효율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이를 개선하고자 7개 지방본부로 개편하여 노동조합이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나고 힘차게 재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편 5호 안전인 중앙노사협의회 요구(안)은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각 지방본부 지방노사협의회 협의결과를 바탕으로 선정했다.

2020년 1분기 중앙 노사협의회 실시

KT노동조합과 회사는 3월 24일(화) 분당사옥 회의실에서 2020년 1분기 정기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였다. 노사는 ▲업무용 노트북 대개체(하반기 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복무·복지제도 사용기한 연장 ▲사무환경(노후조명시설) 개선 ▲분실/훼손/노후화 사원증 무료교체 ▲노사협의회 규정 개정 등 총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복무, 복지제도 사용기한 연장과 관련해서는 각 제도별 여건을 고려하여 조합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연장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수련관 생활입소는 신청불가 기간만큼 연장하고, 안식년 휴가와 청원(본인결혼)휴가는 올해 말까지 사용기한을 연장한다. 사무실 조명 노후화에 따른 환경개선은 2분기에 노사합동 실태조사 후 3분기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 2020년 1분기 노사협의회 회의록 및 결과는 KT노동조합 홈페이지 자료실 [문서정책] 참조

제2차 산하조직 확대간부 회의 실시

KT노동조합은 3월 11일(수) 10시 30분, 충남지방본부 회의실에서 2020년도 제2차 산하조직 확대간부 회의를 실시했다. 이번 회의에서 오는 3월 말 개최예정이었던 2020년 정기 전국대의원대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대의원대회의 개최 시기는 상황을 지켜보며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이어 코로나19 예방 관련하여 일부 지역 조합원에게도 감염 유사증상이 나타남에 따라 추가확산 방지를 위하여 당분간 지부 순회 등 활동을 중단해 줄 것을 각 지방본부에 시달했다. 아울러 지부장 주관 재택근무 준수 및 문제점 보고 등 복무실태 점검, 보호 용품 지급 여부, 행동요령 등의 조합간부 행동지침을 하달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코로나19 관련 근무직원 케어를 위한 부서운영비 예산배정

KT노동조합은 코로나19 대응 관련으로 회사 측에 요구하여 다음과 같이 재택근무가 불가한 직원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부서운영비를 추가 배정하기로 결정했다.

- 대상자 : 재택근무 불가직원 10,853명
- 배정액 : 2.7억원 (1인당 2.5만원)
- 예산과목 : 부서운영비 (2020. 3.11 기관별 예산이관 예정)
- Care내용 : 기관별 격려물품, 간식비 등 적의 사용



2020년 1분기 희망퇴직 시행

2020년 1분기 희망퇴직을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

- 신청기간 : 2020.03.03(화) ~ 03.10(화) 18:00
- 신청자격 : 정년 잔여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직원 중
 -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자
 - ▶ 2020년 2분기 임금피크제 도래 예정자
 - ▶ 중대공상 및 신체정신상 장애로 업무수행이 어려운 직원
 - 산재승인 이력이 있거나 장애인 등록증 보유자
 - 신체정신상 장애가 있어 병원급 진단서 제출자



중앙상무집행위원 임명장 수여

KT노동조합 김해관 위원장은 3월 2일(월) 중앙상무집행위원과 미팅을 가진 후 신임 정성호 국장(前 강북지방본부 남양주 지부장)을 법규국장에 임명했다.

2020년도 임직원 중학생 자녀 대상 무료 인터넷 강의 신청안내

KT노동조합은 임직원 중학생 자녀를 위한 무료 인터넷교육 지원을 위해 3월 2일부터 아래와 같이 신규 신청을 받고 있다.

- 이용대상 : 임직원 중등자녀 및 예비중학생(초등 6학년 이상)
 - 기존 이용자 : 2020년 5월 말까지 자동 연장
 - 신규 신청자 : 신청화면에서 수박씨.com 회원가입 후 KT직원 인증
 - 제공사항 : 중등 교과과정 온라인 교육(수박씨닷컴 중등 온라인강의 무제한 수강가능)
 - 신청방법 예시
 - 1단계 : KT노동조합 홈페이지 > 나눔공감 > 무료인터넷교육 > 신청하기 페이지에서 중학생 서비스 신청
 - 2단계 : 수박씨.com 접속 > 수박씨 회원가입 > 가입한 계정에 대해 KT직원 인증 후 서비스 이용가능
- ※ 이용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공지
※ 자세한 사항은 KT노동조합 홈페이지 NEWS [조합소식] 참조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KT노동조합 방문

지난 1월 제27대 한국노총 위원장으로 취임한 김동명 위원장이 이동호 사무총장과 2월 28일(금) KT노동조합을 첫 방문했다. KT노동조합 김해관 위원장은 이날 “한국노총의 새로운 집행부를 이끌 김동명 위원장과 이동호 사무총장의 방문을 환영한다”고 말한 뒤 “KT노동조합도 한국사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위한 길에 한국노총과 함께 노력하고 연대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도 “어려운 선거였지만 KT노동조합의 지지와 격려로 노동존중사회를 위한 여정에 큰 힘을 얻을 수 있었다”며

“이 힘을 바탕으로 노동이 희망이 되고 노동이 주체가 되는 사회를 위해 더욱 전진하겠다”고 약속했다. KT노동조합은 향후 한국노총 지도부와 힘을 모아 어려운 노동현실을 타개함은 물론, 구체적 현안 대응과 투쟁방안 등에도 적극 연대할 계획이다.



2019 하반기 회계감사 실시

KT노동조합은 2월 17일(월)부터 규약 제43조에 의거 2019년도 회계연도 하반기 중앙 회계감사를 수감했다. 총 6명으로 구성된 회계감사위원 6명은 2월 21일(금)까지 5일간 감사를 실시했으며, 회계감사위원회 김동영 대표위원은 마지막 날 총평을 통해 “지난 5일간 면밀하게 감사한 결과 상반기에 지적된 행정지도사항 이행 등 대체적으로 조합비가 목적과 예산 항목에 맞게 적절하고 계획적으로 집행돼 있다”고 평가했다. 김해관 위원장은 이에 “코로나19

사태로 온 나라가 어수선한 어려운 상황과 숙식이 불편한 여건에서도 노동조합의 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지적해 주신 데 감사 드린다”며 “사소한 오지출이 하나라도 생기지 않도록 더욱 철저히 신경 쓰겠다”고 강조했다.



최재성 국회의원 초빙 정책간담회 개최

노동조합은 2월 14일(금) 오후 4시, 중앙본부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국회의원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유료방송 점유율 합산 규제에 대한 입장’ 등의 의견을 전달했다. 김해관 위원장은 이날 KT노동조합 사무실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국회의원을 환영하며 “KT노동조합과 더불어민주당의 여러 의원들과 오래전부터 연대를 이어왔다”고 밝힌 뒤 “노동자, 국민을 위해 향후에도 꾸준한 연대와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국회의원으로 “노동계와의 정책연대에 앞서 무엇보다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

는 관계가 선행되어야 정책도 진심이 담겨져 진정한 연대가 가능해진다”며 “그러한 발전적인 과정에 함께할 수 있는 정치인이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노동조합은 이날 최재성 의원측에 유료방송 점유율 합산규제와 관련하여 점유율 제한은 KT에만 적용되는 차별적 규제이므로 대형 미디어 기업과의 치열한 경쟁을 이겨내기 위해 국내시장 점유율 제한을 풀고 대형화 트렌드를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어 인터넷은행 특례법과도 관련하여 국민편익 증진을 위해서라도 금융위원회의 KT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해줄 것을 건의했다.



2020년 무재해 염원 안전기원제 개최

KT노동조합과 회사는 1월 31일(금), KT의 무사고 염원과 안전의식을 고취하는 2020년도 노사 공동 안전기원제를 개최하고 전국 사업장의 무사고와 무재해를 기원했다. 노동조합 최장복 조직실장, 박충범 산업안전국장 및 회사 측 비상안전담당 관계자들이 참여한 이날 행사는 오전 6시에 분당 사옥에서 출발해 오전 10시 30경 전라남도 영암군에 위치한 월출산에 도착하여 천황사를 방문한 뒤 바우제단으로 이동, 기원제를 시행하고 KT 전국 현장의 무사고를 위한 노사 실천을 결의했다.



2020년 상반기 신입 조합원 특강 실시

KT노동조합은 1월 22일(수) 원주에 위치한 그룹인재개발실에서 2시간 동안 2020년도 상반기 신입 조합원 199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중앙상집 간부들은 먼저 노동조합의 12개 지방본부, 중앙본부 각 실처의 역할 등을 세세히 소개하고 KT노동조합의 역사와 제도, 근로조건 개선 등 지금까지의 활동에 관해 설명했다. 이어 상급단체인 한국노총과 IT연맹에 대해 소개한 뒤 복지제도, ㈜다운플랜 상조 서비스 안내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김해관 위원장은 이날 신입 조합원들을 만나 “가능한 한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그로 인해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인재가 되길 바라며, 노동조합도 보다 깊이 있고 현실 가능한 대안을 찾아서 여러분과 함께 전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2020년 3월 성과급 지급기준 및 개인별 기준연봉 조정 안내

● 지급대상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G직/A직(청원경찰 포함)

구분	전사	부문	담당	개인	계
G직	50	50±25	50±25(직책±50)		150±50(직책±75)
A직	30	30±15	30±15(직책±30)	0~1,475	60~1,595(직책 45~1,610)

● 지급기준

1. 지급산식 : 월 기준급 × 지급률
2. 지급규모 : 단위 %

● 성과급 지급률 조회 : ERP > HR > 개인업무 > 급여

> 성과급 차등기준

- 조회가능기간 : 2020. 3. 24(화) 9시 ~ 4. 3(금) 18시

● 지급일 : 2020. 03. 25(수)

▶ 2020년도 기준연봉 조정

● 기준연봉 조정대상 : G직, A직 및 청원경찰

● 기준연봉 조정사항

구분	적용시기 (급여적용)
• 2019년도 인사평가인상을 적용 • Pay-Band 상·하한 Outlier 보상기준 적용 • 임금피크 대상자 성과보상금 지급	2020.11일자 (1월급여)
• 2019년도 직급승진 인상액 반영	2020.2.1일자 (2월급여)

2020년 제1차 중앙위원회 및 산하조직대표자 회의

KT노동조합은 1월 15일(수) 오전 10시에 '2020년도 제1차 중앙위원회' 및 '제1차 산하조직대표자 회의'를 열고 안건 의결 및 곧 있을 회사 조직개편의 큰 틀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먼저 개최된 '2020년 제1차 중앙위원회 회의'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현재 10명으로 구성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11명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됨에 따라 본사지방본부 배준환 조합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됐다. 이어진 '2020년도 제1차 산하조직대표자 회의'는 현안 사항으로 2020년도 현장 조직활동 전담반 운영에 관해 토의했다. 단체교섭(안)에 대한 조합원 의견수렴 및 현장 애로사항 접수채널을 강화하고 요구사항에 대한 신속한 피드백을 통해 조합원과 함께하는 노동조합을 정립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단체교섭', '현장활동', '활동지원'의 3개 분야로 편성하고 전국 254개 지부를 대상으로 조합원 의견수렴과 현장의 각종 행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해관 위원장은 “노동조합의 지방조직운영을 보다 집중화시켜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뒤 “새로운 한 해를 맞아 KT그룹 전반의 재도약과 근로조건 개선 및 권익향상을 위해서는 먼저 그룹노조 차원의 연대강화와 소통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 여성의 날 112주년 특집

근대 여성운동의 역사와 투쟁의 선구자들



1977년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 UN 공식 제정 당시 미국 가두 행진 모습

Gender equality
과거를 돌아보지 않

과거를 돌아보지 않으면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낡은 질서가 무너지고 오늘날 여성의 사회적 위치가 높아진 것은 역사 속 수많은 여성의 용기와 끈기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성별에 따라 배분된 차별과 억압에 맞서 싸운 여성들, 자신의 삶에 대해 생각하고 말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율권을 위해 기꺼이 행동한 여성들. 아직 다다르지 않은 완전한 양성평등을 위해 여성 운동의 선구자들과 그 발자취를 되돌아 보지 않을 수 없다. 과거에서부터의 약속과 시행착오를 되짚어 보는 시도는 먼저 간 이들의 삶을 통해 현재의 우리 삶을 좀 더 나은 것으로 만들려는 움직임이다.

“여성이 단두대에 설 권리가 있다면
연단에 설 권리도 가져야 한다”

- 프랑스 최초의 여성운동가, '올랭프 드 구주'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여성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형성해가는 주체가 되고자 하는 노력은 인류사 내내 계속되어 왔다. 역사 속에서 남성은 정치, 사회, 경제, 문화의 수많은 부분을 주도해 왔으며, 여성들은 세계를 구성함에 있어 남성과 동일한 권리를 갖지 못했다. 인류가 태동한 이래 ‘여성은 이래야 한다’는 고정관념 속에 의무만 있고 권리는 적은 2등 시민의 차별을 받은 것이다. 성 차별의 역사는 그만큼 오래되고 견고했다. 고대 이집트나 우리나라 고려시대 등 일부 문화권에서 여성과 동등한 위치에서 강력한 권위를 가진 여성 세력가들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그것은 여성 자체의 위상 보다는 가문의 위상에 따른 것이었다. 서양의 중세시대에도 여성과 남성의 동등성이 이론적이지만 어느 정도 인정되는 사례가 종종 발견되었다. 여성이 남성을 대리하거나 가업을 잇는 등 사회적으로 적지 않은 활약을 했다. 귀족여성의 경우, 남편에게 종속된 몸이었지만 남편의 부재 시에는 영주 대리로서 대소사를 관할했다. 수공업에는 많은 여성 도제가 있었고 직물업은 온전히 여성들이 종사했다. 중세시대 의과대학을 졸업한 전문의는 거의 남성이었지만 간호사, 약사, 치료사는 대부분 여성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중세 시대에도 여성의 인권은 남성에 비해 훨씬 열악했다. 남성은 축첩과 간통을 해도 교묘히 빠져나갔지만 여성은 잔혹

하게 고문 당하거나 사형에 처해졌다. 여성이 강한 욕망의 소유자일 경우 남성을 타락시키는 악마의 자식이라고 매도했고, 특별한 지식과 능력을 갖춘 여성을 마녀라고 누명 씌워 화형에 처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수세기 동안 집단 광기를 연출했던 마녀사냥은 그 시대가 겪었던 종교적 번민에서 탈출하는 비상구이자 무지한 백성을 다스릴 사회 통합 기제였던 동시에 위정자들이 탐욕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오래도록 억압받던 여성의 권리에 대한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 오늘날 여성이 목소리를 내고 직접 행동하기 위한 투쟁의 선봉에는 혁명가인 ‘올랭프 드 구주’가 있었다. 1748년에 태어난 올랭프 드 구주는 당시의 시대적 관점으로 봤을 때 과격한 여성인권 옹호론자였다. 1789년부터 10년간 이어진 프랑스 혁명을 통해 시민해방은 실현되었지만 여성은 그 시민의 범주에 들지 못했다. 올랭프 드 구주는 흑인 노예제 철폐, 조세 개혁과 더불어 이혼과 교육의 권리 부여 등 남성과 동등한 권리가 여성에게도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혁명의 본질을 왜곡했다는 이유로 1793년 45살의 나이에 처형당하기 전, 감옥에서 ‘여성인권과 시민권 선언’을 작성하여 여성존중을 설파했다. 올랭프 드 구



World Women's Day 112th Anniversary

주는 단두대에 올라 “여성이 사형대에 오를 권리가 있다면 당연히 의정 연설 연단에 오를 권리도 가져야 한다”며 끝까지 신념을 굽히지 않았다.

비슷한 시기에 영국에서도 모든 생활영역에서 남성과 동등한 지위와 권리를 갖기 위한 여성운동이 일어났다. 영국에서 여성의 권리에 대한 초기 사상을 완성한 자는 메리 울스턴크래프트로, 그는 1792년 영국에서 ‘여성의 권리 옹호’라는 책을 출간해, 여성도 교육·직업·정치 등의 영역에서 남성과 똑같은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남녀평등 사상은 19세기에 이르러 여성의 참정권획득 운동으로 구체화되었다.

힘나했던 여성참정권의 쟁취

인민 주권을 원리로 하는 민주주의가 18세기 유럽의 정치적 자유주의의 사상적 배경을 바탕으로 발전하면서 여성 참정권 운동도 본격화됐으나 프랑스에서는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진 올랭프 드 구주의 죽음 이후 여성 참정권 운동은 좌절되었고 혁명도 끝났다. 1793년에는 국민공회로부터 여성의 집회가 금지되었고, 모든 여성단체가 해체된 것이다.

그 후 프랑스의 여성참정권운동은 19세기 말에 영국과 미국의 여성운동의 영향을 받아 다시 활발해졌다. 역사적으로는 1893년 뉴질랜드가 세계 최초로 여성참정권 인정했고, 호주는 1902년, 유럽대륙에서는 핀란드가 1906년 최초로 여성투표권을 인정했다. 후발주자로서 가장 맹렬한 운동이 펼쳐진 국가가 미국과 영국이다. 미국의 여성참정권 운동은 인간해방운동과 더불어 급진적으로 발전, 1848년 최초로 여권대회가 뉴욕에서 개최되었다. 1869년에는 전국여성참정권협회와 미국 여성참정권협회가 조직되었고, 의회에 <여성참정권법안>을 제출하는 등 체계적인 운동을 전개했다. 그 후 미국의 여성참정권운동은 연방정부의 법개정을 목표로 전개되었고, 제1차 세계대전 후에 연방정부의 헌법



수정안이 상·하 양원을 통과함으로써 1920년 21세 이상의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참정권을 획득하게 되었다. 영국에서는 1928년에 남녀에게 동등하게 투표권이 주어졌다. 한국의 경우 1948년 제정된 헌법에서 여성참정권을 부여했다.

한국의 개화기 신여성의 등장과 현대 여성운동

우리나라에서의 여성운동은 개화기에 서구문물의 영향을 받고 신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여성으로서 자기정체성을 갖고 여성단체를 조직하여 활동한 것으로부터 비롯되었다. 화이트 칼라의 여성이 주축으로 여성의 경제적 독립으로 교육, 혼인, 법에서 남성과 동등한 권리와 참정권 요구했으나 사회적 반응은 대부분 적대적이거나 혐오를 보였다. 나혜석, 강경애, 차 미리사 등이 대표적 인물로 이들은 평온한 삶을 거부하고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행보로 거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우리나라 최초 여성단체로는 여성교육단체인 찬양회와 여우회(女友會)로, 여우회는 최초의 여성교육기관인 순성여학교를 설립했고 최초로 경복궁 앞에서 축첩반대 연좌시위를 하였다. 또

1917년 3월 8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봉기한 여성노동자의 시위.
'세계여성의 날'이 3월 8일로 제정된 이유이다.



한 1907년 ‘혈성단 애국부인회’등을 중심으로 국채보상 운동도 진행하였다.

이처럼 개화기 여성운동은 여성의 교육권보장과 남녀의 교육기회균등을 요구하는 여성교육운동과 함께 애국운동과 구국운동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일제강점기 여성운동의 맥은 해방 이후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미 군정기 이후 여성운동의 흐름은 남녀 평등한 권리의 확립을 주목표로 활성화 됐고, 이후 여성운동의 기반이 되었다. 여성에게 수동적인 역할을 강요하고 남성의 지배에 의존하도록 하는 사회를 비판하고, 낡은 관습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새로운 시도를 가로막는 제약을 향해 맞서 싸운 수많은 선구자들이 있었기에 현대 여성은 그들 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향유할 수 있었다. 여성인권을 위해 선봉에 섰던 선구자들 덕에, 아직까지 세계의 수많은 여성들은 삶을 살아가며 마주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완전한 성평등을 위하여 목소리를 내고 있다.



내 몸이 불꽃으로 타올라
한 줌 재가 될지언정
언젠가 먼 훗날 나의 피와
외침이 이 땅에 뿌려져
우리 후손 여성들은 좀 더
인간다운 삶을 살면서
내 이름을 기억할 것이라.

- 나혜석, 이혼고백서 中 -



지부사업 계획 보고 및 대의원 271명 선출

2020년 정기 지부대회 개최

KT노동조합은 지난 2월 11일(화) 2019년 지부사업 결과와 2020년 활동계획을 소속 조합원에게 보고하는 2020년 정기 지부대회를 개최하였다. 각 지부는 현장의견을 노동조합 집행부에 전달하고 올해 노동조합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대의원 선거를 진행하여 총 271명의 대의원을 선출했다. 대의원은 전국 대의원대회를 통해 규약의 제정 및 개정, 위원장을 제외한 임원 및 신입, 사업보고 및 예산결산 심의, 사업계획 심의 및 예산편성 승인, 노동쟁의발생 결의 등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김해관 위원장은 이번 지부대회 격려사를 통해 “지부사업을 공유하고 노동조합에 의견을 전달하는 ‘일꾼’을 선발하는 중요한 날만큼 대의원 후보로 나온 동지들께서는 조합원을 위해 정책을 중심으로 한 선의의 대결로 당당히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조합원께서도 노동조합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선도하고, 실천할 열정을 가진 대의원을 선출해 달라”고 독려했다. 12개 지방본부별 각 지부 대의원 선출명단은 다음과 같다.

2020년 전국 대의원 선출명단 (총271명)

• 강북(31명)

오대성(강북고객본부) 이기하(강북고객본부) 박정환(중앙) 고광일(원호) 김동현(서대문) 권혁연(은평) 기남로(신촌) 황현석(광화문) 김동기(월곡) 오종석(고양) 박종울(덕양) 최종명(파주) 박종국(광진) 이주원(성수) 인윤식(동대문) 황영출(노원) 김태윤(도봉) 김재평(강북) 정병권(의정부) 이형택(동두천) 이동철(포천) 진정현(구리) 정성호(남양주) 정현근(양평) 양문호(중랑) 박철성(강북무선운용센터) 김삼호(서울중부유선운용센터) 강재구(서울동부유선운용센터) 강종국(경기북부유선운용센터) 최호규(IP운용센터) 박근우(강북엔지니어링센터)

• 강남(28명)

박성만(가락) 안동식(강남) 권영삼(강동) 허정식(강남무선운용센터) 이종수(반포) 정차석(서초) 유병욱(서울강남유선운용센터) 손득모(송파) 이성구(신사) 박성순(양재) 오정근(경기광주) 황윤규(경기남부유선운용센터) 최정섭(남수원) 지동근(동수원) 허남일(분당) 이정형(성남) 이종태(수원) 김용배(수지) 박현진(강남고객본부) 이원혁(강남고객본부) 이송찬(안성) 지영근(여주) 정상철(오산) 김대진(용인) 김학능(이천) 이상진(평택) 이학림(하남) 남기형(화성)

• 서부(34명)

김용철(서부고객본부) 이현철(서부고객본부) 김수홍(강서) 최종민(가양) 김해광(목동) 정금철(구로) 김영필(금천) 한원호(개봉) 안진홍(영등포) 김성배(여의도) 김상철(동작) 조기한(관악) 엄금용(대방) 민동식(안양) 임영락(서안양) 이평수(군포) 김덕기(안산) 황병혁(동안산) 허준호(시흥) 김용태(부천) 심재구(북부천) 심유선(부평) 고재덕(계양) 이종보(인천) 전용철(연수) 박원호(송의) 김윤철(서인천) 김규태(김포) 안상호(항동) 윤웅현(강서무선운용센터) 김성만(서울남부유선운용센터) 최희웅(인천유선운용센터) 박하수(미디어운용센터) 서정호(강남엔지니어링센터)

• 부산(40명)

정영근(부산고객본부) 신대성(부산고객본부) 이정재(동부산) 김수택(양산) 박상일(동래) 이기학(연산) 김경철(기

Congratulation!

장) 이무열(서부산) 박정환(사하) 이동수(영도) 강호성(남부산) 송영기(해운대) 이성철(서면) 김미아(대연) 이창림(수영) 남상길(북부산) 김성호(김해) 고정규(구포) 강준호(창원) 정성민(마산) 서명구(밀양) 강태균(진해) 윤해(함안) 천종대(울산) 임태일(남울산) 김석준(동울산) 오형덕(안양) 임용택(진주) 김원용(거제) 김도형(통영) 박현권(사천) 이상인(거창) 박찬기(산청) 왕용길(부산무선운용센터) 이상호(부산유선운용센터) 김주경(경남유선운용센터) 최용석(울산유선운용센터) 김동욱(부산엔지니어링센터) 김용진(부산국제센터) 김현수(부산고객컨설팅)

• 대구(27명)

정재윤(대구고객본부) 김인발(동대구) 진상언(수성) 윤식한(경산) 이영택(영천) 김선명(달서) 박순목(남대구) 안수상(달성) 정영식(서대구) 허운하(북대구) 권익수(중대구) 박용성(구미) 박명서(김천) 천명호(상주) 정명호(칠곡) 이성균(포항) 윤웅현(경주) 최진환(울진) 김오일(안동) 지병준(영주) 권민식(문경) 권오용(청송) 하정명(대구유선운용센터) 이준석(동대구유선운용센터) 김종수(경북유선운용센터) 김경호(대구무선운용센터) 김성삼(대구엔지니어링센터)

• 본사(32명)

이동엽(수납지원센터) 민병훈(BizCRM센터) 박종문(국제전화국) 이승학(기업부문) 김승환(기업부문) 이장수(기업부문) 이인규(기업부문) 김진철(기업부문) 이영인(기업고객컨설팅센터) 최승원(마케팅부문) 양태식(AI/DX융합사업부문) 박종은(AI/DX융합사업부문) 정인형(OSP운영혁신실) 한종필(네트워크운용본부) 김형울(네트워크관제1센터) 안이호(국제통신운용센터) 장성업(네트워크연구기술단) 한익희(IMO플랫폼운용센터) 김용범(융합기술원) 이성갑(Infra연구소) 김상현(AI연구소) 김수진(구매지원센터) 천성영(그룹인재개발실) 박대식(본사) 최명호(본사) 정우현(본사) 신정민(본사) 변정각(본사) 조경택(본사) 곽민규(본사) 김영복(본사) 노일철(본사)

• 전남(19명)

선동희(전남고객본부) 박진수(북광주) 김광수(수원) 고일남(담양) 김원태(서광주) 강성봉(광주) 한승학(남광주)

허유석(나주) 오승희(목포) 홍유선(강진) 최용철(해남) 신봉주(순천) 신호주(광양) 한영수(여수) 배진권(호남무선운용센터) 고원상(광주유선운용센터) 이경렬(전남유선운용센터) 박홍주(호남고객컨설팅) 박태규(호남엔지니어링센터)

• 전북(9명)

박호남(전북고객본부) 박성진(전주) 임정택(북전주) 진홍윤(남원) 노용환(익산) 채범석(군산) 이광욱(정읍) 정광모(김제) 장세경(전북유선운용센터)

• 충남(25명)

편홍배(서대전) 박연일(서대전지점) 문학주(유성) 염태완(논산) 김용섭(공주) 임성택(홍성) 장동인(서산) 윤호중(당진) 김용길(부여) 김성용(보령) 명노승(예산) 신선섭(천안) 오덕수(아산) 김영준(남천안) 김경찬(대전) 박재웅(용진) 황성윤(세종) 윤용재(신탄진) 강희석(충청무선운용센터) 이모이세(대전유선운용센터) 김종규(충남유선운용센터) 오동윤(충청엔지니어링센터) 오동석(충남고객본부) 이현조(충청고객컨설팅부) 김재원(네트워크관제2센터)

• 충북(9명)

장남전(충북고객본부) 고제성(청주) 차용남(서청주) 신한식(옥천) 최재용(충주) 송창규(제천) 한일오(금강) 장민철(진천) 김재일(충북유선운용센터)

• 강원(12명)

천명기(강원고객본부) 안상진(춘천) 이한식(홍천) 김종호(화천) 권창순(강릉) 김재식(속초) 박한수(동해) 박태근(원주) 엄기현(평창) 우병일(태백) 최희동(강원무선운용센터) 박재호(강원유선운용센터)

• 제주(5명)

현성환(제주고객본부) 이치만(제주) 최태종(신제주) 이조희(서귀포) 김희철(제주네트워크)



형식은 간소하게, 소통은 긴밀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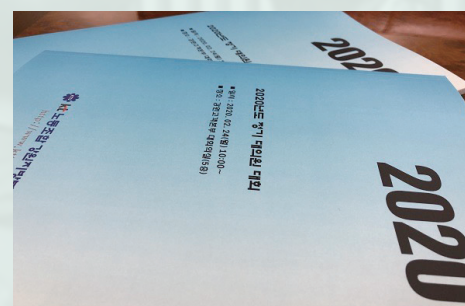
2020년도 정기 지방본부 대의원대회

KT노동조합은 지방본부별로 한 해 활동을 정리하고 올해의 사업목표를 정하는 '2020년 정기 지방본부 대의원대회'가 실시됐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회는 간소하게 진행됐지만, 지방본부 운영 방향을 수립하는 중요한 행사인 만큼 참가한 조합원들은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하게 소통하며 열기를 가득 채웠다.

변화와 도약의 신호탄을 울린다

KT노동조합의 12개 지방본부는 지난 2월 24일(월)부터 2020년도 정기 지방본부 대의원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작년 지방본부 활동을 조합원들에게 보고하고 올해 지방본부 사업계획(안)을 심의하는 한편, 각 지부로부터 건의된 사항을 확인하고 결의문을 채택했다. 아울러 기타 지방본부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의결하고 우수 조합원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했다. 각 지방본부의 연간 행사 중에서 의미와 무게가 남다른 행사이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사태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어 조합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합의가 필요한 안전에 집중하는 약식으로 시행했다.

김해관 위원장은 강북 및 서부지방본부 대의원대회를 차례로 찾아 이번 신입 CEO 선임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은 경영의 당당한 주체로서 KT 전체 구성원을 대표하여 분명한 입장을 지배구조위원회에 강력히 전달하는 한편 이를 대외적



으로 천명했다”라고 소개한 뒤 “그 결과 KT 종사원이 원했던 방향으로 귀결되었으며, 이는 노동조합의 경영참여라는 활동 방향과 KT노동조합의 위상을 높이는데 커다란 시금석을 마련했다고 자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앞으로 KT노동조합은 새로운 경영체제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집행부 마지막 해인 올해는 노동조합의 운영에도 중대한 변화를 준비해야 한다는 사명감과 강력한 조직력으로 조합원의 염원과 기대에 부응하는 단체교섭 성과를 쟁취하겠다는 결의를 다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조합원의 건강과 안전

이번 지방본부 대의원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한 노사공동 대응사항을 상세하게 전파하고 이를 철저하게 준수할 것을 전파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KT노동조합 최장복 조직실장은 지난 2월 27일(목) 전북, 전남지방본부 대의원대회에 참석하여 현안을 공유하고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전사적 대응 지침에 적극적으로 참여 및 협조할 것을 전했다. 최장복 조직실장은 “코로나 확산으로 조합원은 물론 전국민이 날이 갈수록 불안해하고 있다”며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개인위생에 더욱 신경 써 주시고 건강 관리 수칙을 꼭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조합은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전사적 대응수준을 상향하고 강도 높은 예방조치를 회사 측에 즉각 요구하여 이를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한 뒤 “지방본부에서도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태백근무 지침을 예외 없이 적극 이행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2020 정기 전국대의원대회 연기

이와 관련하여 3월말 개최할 예정이었던 2020년 정기 전국대의원대회는 선제적 대응의 일환으로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시기와 일정은 코로나19 사태의 추이를 지켜본 후 재공지할 예정이다.

KT노동조합은 이번 대회에서 수립한 계획과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하여 조합원의 권리를 향상시키는 ‘힘 있는’ 노동조합으로서 조합원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거듭날 것이다. 또한 현재 불어 닥친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상황이 마무리될 때까지 조합원들에게 안전한 일터, 건강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능동적이고 현명한 대처로 코로나19를 이겨내자

코로나19 A to Z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불태(百戰不殆)라는 말이 있다. 손자병법에 나오는 말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뜻이다. 이는 비단 물리적인 전쟁에만 국한된 말이 아니라라는 것을 새삼 느끼는 요즘이다. 따스한 햇살을 준비하고, 새로운 활기로 가득한 봄날을 만끽해야 할 지금의 시점에 전 세계는 정체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존재와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

미지의 호흡기 질환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새로운 유행성 질환이 발병했다. 초기에는 그저 원인을 알 수 없는 호흡기 전염병 정도로 알려졌으나 2003년의 사스(SAR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및 2012년의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와 같은 코로나바이러스의 신종인 것으로 밝혀졌다. 태양의 돌레에서 빛나는 코로나를 닮았다고 하여 '코로나바이러스'라고 불리며 2002년 동남아시아 일대에서 유행했던 사스 병원체와 89.1%의 유사성을 보였다. 처음에는 '우한 폐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등으로 통용되었으나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신종 바이러스 이름을 붙일 때, 편견을 유도할 수 있는 특정 지명이나 동물 이름을 피하도록 한 원칙에 따라 2월 11일 'Corona Virus Disease 2019'를 줄인 'COVID-19'로 명명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한글 명칭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약칭 '코로나19')로 정하게 되었다.

코로나19는 주로 호흡기로 전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경우 고열과 기침,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하고 폐렴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다가 심한 경우 폐포가 손상되어 호흡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잠복기는 3~7일이지만 최장 14일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중국에서는 잠복기가 23일까지 늘어났다는 보고도 있다.

전세계는 지금 코로나19 대공황

도무지 꺾일 기세를 보이지 않으며 2개월 이상 이어지던 중국의 감염 증가세가 3월 들어 조금씩 줄어들면서 안정기에 들었다고 관측되기도 했으나, 이제는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 전역과 이란 등 중동지역에서 확진 환자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바이러스 청정지역이라 여겨지던 나라에서도 감염자가 발생하더니 3월 10일에 이르러서는 전 세계 110여 나라, 확진 환자 114,000여명, 사망자 4,000여 명에 이르렀고 결국 WHO는 3월 11일 코로나19에 대하여 팬데믹(감염병 세계 유행)을 선언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2월 20일 대구·경북 지방을 중심으로 특정 종교 집단을 통해 감염자가 급증한 이후, 집단 감염자와 집단 감염 지역을 집중적으로 확인하면서 3월 초 들어 그 증가세가 점차 수그러들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지역에 따라 작은 규모의 집단적인 발생 사례가 산발적으로 발견되고 있어 경계를 늦추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예방이 최선책

불행히도 아직까지는 예방이나 치료를 위한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어 있지 않다. 전 세계가 치열하게 치료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는 있지만 전문가들은 개발이 되더라도 상용화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유전적 안정성이 낮아 돌연변이가 자주 발생하는 것이 가장 큰 난관이다. 번식이 빠르고 변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막상 백신을 개발하더라도 바로 내성이 발생하여 효과가 급감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직접적인 치료 방법이 없으니 예방이 필수적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외출 전후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자주 씻고 말릴 것과 외출 시 위생 마스크를 착용하여 호흡을 통한 전염을 예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사람이 밀집한 지역을 피하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는 호흡기 질환의 사람에게서 속히 멀어져야 한다. 이 바이러스는 인체를 떠나서도 3~4시간 정도 살아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귀가 후에는 외출시의 복장을 벗어 세탁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호흡기의 핵심인 코와 입을 정확하게 가리는 올바른 마스크 사용법을 숙지하고 지속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여행은 물론 근거리일지라도 이동 자체에 대한 자제가 필요하다. 부득이 감염지역을 방문해야 할 경우 가금류를 포함한 동물과의 접촉을 피하고, 감염지역을 여행하지 않았더라도 유사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병원과 같은 의료기관을 찾아가기 보다 자가격리 상태를 유지한 후에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나 지역 보건소에 전화하여 안내를 받아야 한다.

한 눈에 보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정의	SARS-CoV-2 감염에 의한 호흡기 증후군
전파 경로	- 현재까지 비말, 접촉을 통한 전파로 알려짐 - 기침이나 재채기 등 호흡기 비말 - 오염된 물건을 만진 뒤 눈, 코, 입을 만짐
잠복기	1~14일 (평균 4~7일)
증상	- 발열, 권태감, 기침, 호흡곤란 및 폐렴, 급성호흡곤란 등 다양하며 경증에서 중증까지 폭넓은 호흡기감염증이 나타남 - 드물게는 객담, 인후통, 두통, 객혈과 오심, 설사도 나타남
치료	대증 치료 : 수액 보충, 해열제 등 보존적 치료 특이적인 항바이러스제 없음
예방	• 백신 없음 • 올바른 손씻기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 외출 후, 배변 후, 식사 전·후, 기저귀 교체 전·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 후 등 실시 • 기침 예절 준수 - 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우리 모두 건강하게 이겨냅시다!

코로나19 극복, KT노동조합과 함께!

2020년 1월 20일, 대한민국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전국을 뒤덮기 시작했다. 예상치 못한 집단 감염으로 인해 소강 국면이었던 감염병이 다시 급속도로 확산된 안타까움도 있었지만 보건당국, 의료진의 노력은 물론 국민 대다수의 자발적인 관리로 점차 극복해나가고 있다. KT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건강과 안전한 직장 수호를 위해 즉각적인 선제 대응을 실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중합상황실 가동으로 노사공동 24시간 대응체계 구축



1.28 긴급 노사협의사항 시행

우리나라에 첫 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설 연휴를 지나며 추가로 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 사이 중국 등 아시아 권역에는 3천 명에 육박하는 감염자와 81명의 사망자가 집계됐다. 사태가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을 기미가 확실해지자 KT노동조합은 일상 업무로 복귀가 시작되는 설 연휴 직후가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과 조치를 회사에 강력히 요구해 28일부터 즉시 시행에 돌입했다.

제일 먼저 불특정 다수와 접촉하기 쉬운 KT 휴양시설에 대한 운영을 잠정 중단했다. 특히 글로벌 해외연수 프로그램으로 다낭에 방문했던 직원은 재택근무로 전환했으며 최근 해외로 출장 및 여행 경험이 있는 직원들에게 재택근무를 권고했다. 평상시처럼 출퇴근하는 임직원에게는 마스크를 배포함과 동시에 바이러스 예방 행동요령을 전자공지하고, 전체 사옥에 감염 및 확산방지를 위해 손소독제를 비치했다. 또한 내부 전체 방역을 즉시 시행하여 감염과 확산에 만전을 기했다.

KT 고객을 위한 집중케어도 실시했다. 플라자

내부 방역은 물론 현장작업 및 고객 방문 직원을 대상으로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빠짐없이 제공했다. 특히 본인은 물론 고객의 바이러스 감염 위험을 대폭 낮추기 위해 고객과 접점이 많은 직원은 별도의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무엇보다 언제 어떤 형태로 발생하게 될지 모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중합상황실을 가동해 노사공동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지방본부 순회는 더욱 꼼꼼하고 신중하게 진행했다. 코로나19가 점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였지만, 감염병 예방을 위한 노사협의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현장순회를 포기할 수 없었다. 무엇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야 더욱 심도 깊은 논의와 조치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만 했다.

감염차단을 위한 전사적 대응 단행

범국가적 차원에서 치열하게 대응했지만 우려했던 코로나19의 집단 감염이 현실이 되었다.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하기 시작하자 정부는 2월 23일 코로나19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시켰다. KT노동조합도 이에 발

맞춰 조합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강도 높은 예방조치를 회사 측에 요구하여, 2월 25일부터 전사 대응 수준을 상향했다.

이번 전사적 대응은 예방과 확산 방지에 모든 자원을 투입하는 데 목표가 있다. 먼저 감염경로의 사전 차단조치로 모든 임직원의 해외 방문 및 출장, 사옥 간 이동을 금지하는 한편 어린이집 및 스포츠센터 등의 복지·편의 시설 운영을 중단했다. 아울러 사내의 단체활동 및 교육 행사 전면 금지, 출근시간대 분산을 위한 시차출근, 구내식당 층별 배식시간 조정 등 다수의 직원이 모이는 상

황을 최소화했다. 사옥 내부 곳곳에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출입구에는 열화상 카메라를 운영하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사람은 출입을 제한했다. 특히 고객을 직접 대면하는 직원은 위생 장갑을 반드시 착용토록 했다. 보다 강력한 대응을 위해 임직원의 절반씩 재택근무로 전환하는 전사 2부제도 단행했다. 임산부 및 육아가 필요한 직원은 즉시 시행했고, 확진자가 많은 대구·경북 지역의 임직원은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가능한 인원 모두 재택근무토록 했다. 노동조합은 더 나아가 재택근무의 철저한 준수를 위해 본부·지사·지점·센터 등 모든



대구·경북지역 조합원 및 의료진, 소외계층 대상 격려품 전달 과정



재택근무



시차출근



COVID-19 확산 예방



비밀감염 예방

근무지를 대상으로 노사합동 현장복무 실태 점검을 집중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상황 종료 시까지 지속적으로 불시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온정의 손길을 모아 보내다

KT노동조합은 집단감염으로 인해 코로나 19 확진자가 급증한 대구·경북지역에 집중적인 지원을 실시하기도 했다. 지난 3월 5일, 노동조합 박충범 산업안전국장은 대구·경북지역에서 근무하는 조합원에게 격려품을 전달하는 한편 시급한 현안을 직접 듣고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해 대구 비상 상황실을 방문했다.

전국에서 확진자가 가장 많은 대구와 경북 지역의 재택근무 가이드가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확산 방지를 위한 현안과 후속 조치 등의 논의도 이어나갔다.

대구·경북지역의 의료진과 지역 소외계층에게 KT 임직원의 마음을 담은 선물도 전달했다. 지난 3월 12일, KT노동조합 최장복 조직실장과 조합간부들은 대구광역시 사회재난과를 방문하여 손소독제, 의류와 수건, 빵과 우유 등 2억 원 상당의 생활필수품 7천 박스를 지원했다.

이번 기부는 코로나19 의료진들이 조금이라도 안전한 환경에서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서 고통이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는 소외계층을 살피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전달 물품 중에는 바람이 통하지 않는 방호복 때문에 늘 땀범벅이 되는 의료진이 즉시 갈아입을 수 있는 속옷과 면티, 양말 등의 의류도 다수 포함됐다. 특히 이 모든 격려물품은 KT임직원들이 모은 ‘사랑나눔 기금’으로 마련해 그 의미를 더했다.

KT노동조합 김해관 위원장은 “확진자가 늘

어 가는 상황에서도 침착함과 질서를 유지하는 대구 시민을 비롯하여 모든 국민이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을 찾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며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힘들 때 서로 돕고 위기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저력을 가진 국민답게 곧 극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장복 조직실장은 대구광역시 사회재난과 이순하 사무관에게 격려물품을 전달하면서 “다른 지역도 감염 검사와 확진자 치료로 바쁘겠지만, 그보다 상황이 훨씬 더 절박한 대구·경북지역은 지원이 더욱 절실할 것”이라며 “오늘 드리는 이 물품들이 환자 치료와 방역 전선에 있는 의료진 및 자원 봉사자들과 형편이 어려운 가정을 위해 작게나마 도움이 된다면 좋겠다”고 인사를 전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날을 꿈꾸며

국가적인 재난으로 이어진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아직은 아무도 알 수 없다. 추가 확진자 소식이 매일 들려오고 전국 어디서든 집단감염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많은 어려움과 불편함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 속이지만 맑은 업무와 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는 전국의 조합원에게서 희망을, 대구를 돕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인 의료관계자와 자원봉사자의 헌신에서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확인할 수 있었다.

KT노동조합은 앞으로도 조합원의 건강과 안전에 더욱 만전을 기하는 한편 최일선에서 코로나19와 맞서 싸우는 의료진과 소외계층에게도 도움의 손길을 전하는 방안을 찾고 실천할 예정이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어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그 날까지 KT노동조합은 조합원을 위한, 조합원과 함께할 것이다.

스마트한 업무노하우, 다 함께 공유해요

재택근무 우수사례 공모전



코로나19는 일상뿐만 아니라 평소의 업무 일과까지 바꿔놓았다. 재택근무와 시차출근, 직출직퇴 등 다소 생소한 제도들을 활용하게 되면서 일을 처리하는 방식도 바뀌면서 다소의 혼란도 있었다. 이에 따라 KT노동조합은 조합원의 업무 노하우를 공유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과 새로운 아이디어 등을 듣고 소통하고자 ‘재택근무 등 우수사례 공모전’을 실시했다. 조합원의 뜨거운 참여로 지난 3월 11일부터 20일까지 많은 의견들을 받아 그중 20건의 사례가 선정되었다. 그중에서도 매우 효율적인 업무 환경을 만들어낸 조합원의 우수사례 2건을, 함께 확인해보자.

‘필수 Kit’준비로 즉시 현장 출동

대구지방본부 경북유선운용센터지부 | 이 용 호 조합원

재택근무 중에도 수시로 L2 고장으로 현장 출동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때 국사를 가지 않고 즉시 현장 방문하면 시간이 단축되어 서비스 만족도도 높아지고, 다른 동료와 접촉하지 않아 코로나19 감염의 위험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확진자가 많은 대구지역인 만큼 더욱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기도 했지요.

그래서 고안해낸 것이 바로 ‘필수 Kit’입니다. 휴대 가능한 작업공구류와 개인 위생용품을 한데 묶어 개인 차량에 늘 비치해놓는 것이죠. 특히 감염 예방이 매우 중요해진 만큼 손소독제나 마스크 등도 반드시 준비하고 있어요.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출

동 전에 하나씩 체크하면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 제가 늘 준비하고 있는 필수 Kit 구성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 ▶ 개인위생용품 : 마스크, 비닐장갑, 소형 손소독제
- ▶ 작업공구 : 광파워미터, 작업등, 광점퍼선, 전원 어댑터, PON 모듈, 공구류
- ※ 현장 출동 시작 시 감염 예방을 위하여 개인 위생용품 필히 착용

추가적인 장비가 필요할 경우에는 국사를 경유하고 있습니다만, 집에서 현장으로 직접 출동하는 경우도 많아서 실제 출동시간은 기존 50분에서 절반

인 25분으로 줄었습니다. 필수 키트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처음에는 조금 귀찮을 수 있지만, 습관화하면 오히려 빠르고 효과적인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집으로의 직출동과 직복귀도 가능한 만큼 많은 조합원분들께 도움이 되는 사례가 되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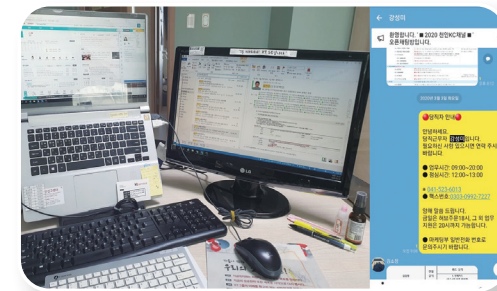
키트 구성품

개인차량 비치모습



ICT 기반 재택근무 효율 극대화

충남지방본부 천안지부 | 강 성 미 조합원



저는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6일까지 재택근무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무실과 다른 환경이다 보니 예상치 못한 이슈가 발생할까 걱정하기도 했는데, 업무 프로세스에 맞춰 팀 동료와 함께 준비하니 불편함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재택근무 중에는 마케팅부 일 당직으로 2회를 진행했는데, 3월 3일과 6일 오후 8시까지 대리점 전산 업무를 지원했습니다. 집안 환경 속에서도 되도록 사무실과 다르지 않게 구성하려 했습니다. 특히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서 듀얼모니터를 구축하기도 했지요. 모니터를 두 개 활용하면 화상회의나 교육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매일 오전 마케팅부 화상회의를 진행하면서 지표와 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2월 28일에는 매장 출점 및 출점 품의를 수행했고, 3월 3일에는 KC 대상 회

상회의도 실시했습니다. 이처럼 모든 업무처리가 가능해서 업무에 따른 불편함은 전혀 없었죠. 심지어 플루터와 프린터 출력도 가능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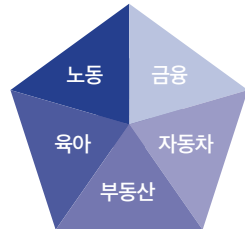
물론 개선해야 할 사항도 있었습니다. VPN을 처음 사용할 때 어려움이 있었고, K-note 지원센터(1588-3391) 연결도 원활하지 않은 점은 다소 아쉬웠습니다. 특히 재택근무 종료 후 사무실로 복귀할 때 보안 문서 열람 등에 제약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한 간편한 해결방안이 마련되면 좋겠다고 느꼈습니다. 코로나19로 업무 환경이 많이 달라지면서 여러 불편함이 있겠지만, 모두가 머리를 맞대어 고민한다면 안전하고 효율적인 업무를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그 날까지, KT노동조합 조합원 모두 힘내세요!

순번	소속		조합원 성명	순번	소속		조합원 성명
	지방본부	지부			지방본부	지부	
1	강북	중앙	박재형	11	본사	본사	김범석
2	강남	평택	맹진호	12	전남	광주유선	박형필
3	강남	강남유선	조상운	13	전남	광주유선	고정훈
4	서부	안양	황영철	14	전북	전주	조은정
5	서부	인천유선	한수정	15	전북	북전주	박주철
6	부산	부산유선	강순영	16	충남	공주	신기수
7	부산	경남유선	서한정	17	충남	천안	강성미
8	대구	동대구유선	구본영	18	충남	천안	안지영
9	대구	경북유선	이용호	19	충북	청주	정보용
10	본사	본사	최지원	20	충북	본부	최경아

우수사례 선정자 명단

모르면 나만 손해! 꼼꼼하게 살피고, 준비하세요!

2020 달라지는 주요 제도



정부는 2019년 12월 30일 <2020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해 2020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정책과 법규 272건을 소개했다. 2020년부터 노후차를 폐차하고 경유차가 아닌 신차를 구입하면 6개월간 개별소비세가 70%까지 인하되거나 개인 신용평가 체계가 신용점수제로 전환되는 등 많은 제도의 개선과 변화가 시행된다. 실생활에 참고가 될 만한 제도를 간추려 소개한다.

노동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

달력에 표시된 공휴일은 관공서 공휴일로 일반 직장인은 휴일임에도 실질적인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2020년 1월부터 300인 이상 기업의 노동자도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별도의 규정이 회사 내에 없어도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 된다.

- 2020. 1. 1.부터 300명 이상 사업(장),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의 경우 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
- ※ 30~300인 미만 사업장: 2021. 1. 1. 시행 ※ 5~30인 미만 2022. 1. 1. 시행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

2020년 1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가 확대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지난해 12월 '주52시간제 현장안착 보완 대책'을 발표하면서 현행 '재해·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수습을 위한 경우' 외에 아래 인가사유를 추가했다.

- 인명의 보호 및 안전의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 응급환자 구조·치료, 교통사고 후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 수습 등
- 시설, 설비의 갑작스러운 장애, 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의 발생으로 이를 수습하기 위해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
 - 갑작스러운 기계 고장, 대학 등의 합격자 발표 오류 수습, 버스운행 중 갑작스러운 교통 정체로 불가피한 연장근로 등
-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가 발생하고, 단기간 내에 이를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나 손해가 초래되는 경우
 - 원청의 갑작스러운 주문에 따른 촉박한 납기일, 대량 리콜사태, 악천후로 인해 지연된 공기(工期) 보완, 마감이 임박한 회계 처리업무 등
- 관계법령에 따른 소재·부품과 소재·부품 생산설비의 연구개발 및 그 밖에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린이집 기본 보육과 연장 보육으로 구분해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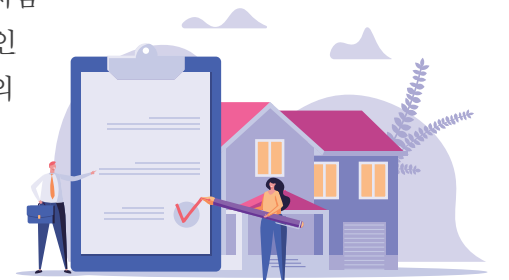
3월부터 어린이집 보육 시간을 기본 보육과 연장 보육으로 구분해 운영된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은 오후 4시까지 제공되는 기본 보육과 오후 4시 이후 7시 30분까지 이용하는 연장 보육으로 나뉜다. 연장 보육은 연장반 교사가 전담하여 보육하게 된다.

또한 전자출결시스템이 도입되고 영유아 가정에 등하원 '안심 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연장 보육반 이용은 0~2세 반의 경우 맞벌이, 다자녀, 취업 준비 등 장시간 보육 필요가 확인되어야 신청 가능하며 3~5세 반은 필요한 경우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육아

부동산 중개료, 부동산 계약서에 미리 기재

2020년 2월부터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수수료 협의 후 미리 기입하는 것이 의무화되었다. 현재 제도에서는 부동산 계약 시 수수료에 대한 기준이 최대요율만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요율은 협의를 통해 정하는 것이 상관례처럼 여겨졌다. 이로 인해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최대요율을 고정요율인 것처럼 이야기하거나 계약 막바지 단계인 잔금 지급 시 최대요율의 수수료를 요구하여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발생해왔다. 이런 폐해를 막고자 계약서 작성 시 수수료를 미리 협의하고 기입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계약서 상에 계약자가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는 확인란 또한 신설하였다.



부동산

9억원 초과 고가주택 관련 부동산 정책

1월부터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축소되었다. 기존에는 실거래가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 소유자라도 1가구 1주택자라면 거주 여부나 기간에 관계 없이 9억원 초과 양도차익에 대해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2020년 1월부터는 매도하는 주택에 대해 '2년 이상 거주'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1년에 2%씩, 15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30%까지만 공제된다.

또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막기 위한 조치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뒤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금을 회수하도록 했다. 아울러 9억원 초과 1주택자의 경우, 공적 전세보증은 물론 서울보증보험 보증도 받을 수 없게 된다.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 매입 시 취득세율도 현행 2%에서 취득금액에 따라 1.01~2.99%로 세분화된다. 아울러 30억 원 이상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시세의 80% 수준까지 올라 보유세가 인상될 전망이다.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부세 세율도 0.1~0.8%p(포인트) 인상돼 공시가 상승과 맞물려 종부세 오름폭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

가상계좌 실제 입금자 확인 제도 실시

2020년 상반기부터는 보험료 수납을 위해 만들어진 가상계좌에 보험료를 입금한 사람이 실제 보험 계약자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신설된다. 현재는 실제 계약자가 아니어도 보낸 사람 이름을 계약자 이름으로 변경하여 입금할 수 있었는데, 이를 악용해 일부 보험설계사들이 계약자 대신 보험료를 입금하여 보험 가입자를 모집하기도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가상계좌 실제 입금자 확인 제도는 이런 악습을 없애기 위해 신설한 제도로 투명하고 공정한 금융거래를 유도한다.



주택연금 가입연령 만 55세 이상으로 변경

앞으로는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만 55세 이상으로 변경된다. 이로 인해 만약 3억 원 주택으로 만 55세에 주택연금에 가입한다면 월 46만원의 연금액을 평생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근로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하고 있던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다. 과세종합저축 역시 기존 만 65세 이상, 장애인 등의 고객이라면 누구나 1인당 3천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직전 3개 연도 내 1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할 수 없게 되었다.

자동차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개소세 감면 및 차량보조금 축소

미세먼지의 주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배출가스 5등급 이상의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는 경우 국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폐차 지원 제도에 추가로 2020년 11월까지 개별소비세가 감면된다. 2008년 이전에 등록한 경유차를 폐차한 후 신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70%(100만원 한도)를 감면해 준다. 만약 3,000만원의 신형 자동차를 구입한다면 개소세 100만원과 교육세(개소세액의 30%) 30만원, 부가가치세(최종 소비자가의 10%) 13만원 등 총 143만원을 납부해야 하지만, 개소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되어 세금이 43만원으로 줄어든다.

하지만 전기차 보조금은 최대 9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축소된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EV) 차량의 보조금은 500만원으로 변동 사항이 없다. 소형차, 전기차 구입 시 적용되는 개소세 감면 혜택은 2022년까지 연장된다.

“그밖에 달라지는 주요 제도”



1.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대폭 개선

작년 하반기를 가장 뜨겁게 달궜던 이슈 중 하나인 '민식 이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과속단속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 설치 등이 의무화됐다. 2020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에 1,275억 원을 배정했으며 안전설비가 미흡한 스쿨존 내에 무인단속카메라와 신호등을 설치하고, 보도가 없는 도로에 횡단보도를 확충하는 등 안전 설비를 강화한다.

※ 달라지는 어린이보호구역

- 안전진단 확대
- 경찰관 추가배치
- 어린이 안전 위협행위 집중단속
- 무인단속장비 설치 확대 및 제한속도 하향(시속 30km/h)
- 어린이 보행자 보호 위한 제도 개선
-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12만원으로 상향(기존 8만원)

2. 종이박스 자율포장서비스 금지

환경부가 '장바구니 사용 활성화 점포 운영 자발적 협약'을 대형마트와 맺으며 2020년부터 마트 내 비치되어 있던 종이박스 자율포장서비스가 금지된다. 종이박스 재활용에 대한 문제보다는 자율포장 시 사용하는 노끈, 박스테이프 등이 재활용에 문제가 되며 자율포장서비스 자체가 금지된 것이다. 하지만 소비자의 불편함이 커진다는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3. 거스름돈 계좌적립 서비스 시행

앞으로 편의점과 마트 등에서 현금을 지불하고 남은 거스름돈을 계좌로 입금하는 서비스가 시행될 예정이다. 한국은행의 '계좌적립서비스'가 바로 그것인데, 앞으로는 스마트폰에 앱이 설치되어 있으면 모바일 현금카드나 현금 IC카드에 연결된 계좌로 거스름돈을 입금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동전 및 지폐 사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2020년 초 시범 적용 할 예정이다.

4. 카드사 포인트 통합, 현금 수급 가능

그동안 사용처가 마땅치 않거나 사용방법을 몰라 소멸되던 카드사 포인트를 현금으로 수급할 수 있게 된다. 개인에게는 소액이지만 통합하여 보면 1,000억원 규모의 포인트가 그대로 소멸되고 있었던 것인데, 워낙 소액이라 일일이 신경쓰기 어려웠던 여러 포인트를 통합하여 현금으로 수급할 수 있게 되었다.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에서 포인트를 조회할 수 있다.



5. 개인 신용평가 체계 신용점수제로 전환

그동안 개인 신용평가의 척도로 여겨지던 신용등급제를 신용점수제로 전환한다. 기존 신용등급제는 1등급에서 10등급으로 개인신용 등급을 나누어 평가를 해왔는데, 올해 바뀌는 신용점수제는 1에서 1,000점의 점수제이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신용평가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1~2점 차이로 낮은 등급을 받아 은행권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웠던 사람들, 또 신용카드를 잘 쓰지 않거나 대출이 없어 안정적인 재정 상태에서도 낮은 신용등급을 받았던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유경제

성공과 몰락의 기로에 서다

공유경제는 가파른 성장세만큼 심한 성장통을 앓고 있다. 자체 비즈니스 모델의 한계와 회계의 불투명성, 정부의 규제 등이 이어지면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한때 공유경제를 주도했던 우버, 위워크 등이 최근 위기를 겪으면서 공유경제 자체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흔들리는 공유경제

‘공유경제’가 미래 사회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크게 각광받던 때가 있었다. ICT 기술을 통해 물건을 ‘소유’하지 않고, ‘공유’한다는 발상의 전환은 많은 사람의 호응을 얻었다. 실제 2010년을 전후로 주목할 만한 공유기업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왔다. 차량을 공유하는 ‘우버’, 사무실을 공유하는 ‘위워크’, 숙박을 공유하는 ‘에어비앤비’ 등이 당시 공유경제를 대표하는 기업들이었다. 일부 공유경제 기업들은 매출 1조 원 이상인 비상장 기업을 일컫는 ‘유니콘’으로 성장하며 세계 경제를 이끌 유망주로 떠올랐다.

하지만 최근 공유경제가 위기를 겪고 있다. 성장이 빨랐던 만큼 하락의 폭도 크다. 지난해 위워크의 상장 실패가 대표적이다. 2010년 설립된 위워크는 전 세계 111개 도시에 520여 개의 공유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공유오피스 시장을 선도했다. 2016년에는 한국에 진출하기도 했다. ‘부동산계의 우버’로 불리던 위워크는 미국 증시에서 가장 기대되는 IPO(기업공개)로 꼽혔으나, 지난 8월 상장 계획 발표 이후 악재가 겹치면서 결국 무산되었다. 위워크는 이미 2018년 기준으로 약 16억 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사업모델에 대한 회의론이 수차례 언급되었다.

비즈니스 모델의 한계와 법적 규제

전문가들은 공유경제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한계에 봉착했다고 지적한다. 앞서 설명한 위워크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오피스 공유업체는 장기로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고, 고객은 단기로 사무실을 빌린다. 고객의 수요가 꾸준하지 않으면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는 위워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공유경제 기업들이 직면한 문제이기도 하다. 공유경제란 기본적으로 집이나 자동차 같은 장기로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확보해 단기로 임대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기 때문이다. 새로운 공유경제가 기존 사업자와의 이해관계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도 문제다. 결국 이러한 난항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가 만들어졌고, 이는 곧 공유경제의 위축으로 이어졌다. 지난 2018년, 미국과 독일, 프랑스 등 주요 국가에서 숙박 공유 플랫폼 ‘에어비앤비’에 대한 규제를 단행했다. 연간 숙박일을 90일로 제한하거나 집주인 이름, 최근 거래내역 등 세부정보를 당국에 제출하도록 한 것이다. 에어비앤비로 인한 지역 숙박업, 부동산임대업의 피해를 막고 투숙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였다. 우버 역시 진출하는 도시마다 택시업계의 반발로 진통을 겪는 중이다. 수년 전부터 유럽 주요 도시들이 택

시기사의 반(反)우버 파업으로 혼란을 겪었다.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다. 최근에는 ‘타다금지법’이 국회법사위를 통과하면서 관련 서비스가 중단되었다.

일시적인 성장통인가 버블의 몰락인가?

공유경제를 주도하는 기업 대부분은 불특정 다수의 정형화되지 않은 서비스를 공유·거래하기 때문에 신뢰나 품질 면에서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 공유 차량의 경우에는 차량의 청결 상태가 제각각이다. 바로 앞에서 빌렸던 사람이 무신경하면 그 피해는 뒷사람이 겪게 되는 셈이다. 에어비앤비를 통한 숙소 예약은 판매자가 직접 올린 사진만 보고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막상 현장에서 숙박 품질에 불만 사항이 폭주하기도 한다. 우버는 운전자를 검증하는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아서 승객 성폭행 사건 등 범죄 문제도 종종 발생한다. 이에 따라 ‘저렴한 가격으로 모든 소비자와 공유한다’라는 개념에 대한 인식도 조금씩 변하고 있다. 사람들은 공유경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과연 진짜 저렴한 것인지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던 것을 다시 쓴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점차 늘고 있다. 최근 유행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공유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일부에서는 최근 공유경제 기업들의 위기가 과거 ‘닷컴버블’의 몰락과 유사하다며, 공유경제 기업들이 구조적 한계에 직면했다고 분석한다. 하지만 공유경제의 위기를 일시적인 성장통으로 보는 사람도 많다. 당분간 일부 기업들의 조정이 있겠지만 대세가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이는 플랫폼 위주로 재편되는 것이 ‘간편함’과 ‘편안함’을 찾는 소비자의 욕구와 부합하기 때문이다. 제도를 닦아내기 앞서 공유경제 기업들이 자신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비판적으로 되돌아보고, 비용절감·효율성·상생을 위한 노력에 나서야 할 때다.



■ 매일노동뉴스 논설위원 박성국

불확실성의 늪에 빠진 경자년 노사관계

코로나 19 충격과 경제·일자리 위축 ...
메르스 사태와는 다른 전개



지난 2015년에 발생한 메르스 사태는 박근혜 정부가 무너지는 단초를 제공했다. 박근혜 정부는 300명의 아이들을 앗아간 세월호 사건의 어이없는 대처에 이어 투명하지 못한 메르스 대응까지 실정을 거듭했다. 메르스 사태 여파로 경제는 침체했고, 경제 성장률은 2%대로 내려앉았다. 노사정은 그해 9월 15일 노동시장 구조개선 합의에 도출했음에도 정부여당은 독자적인 5대 노동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무모함을 연출했다. 때문에 합의 당사자였던 한국노총마저 노사정 합의안을 파기했으며, 야당들도 법안에 반대했다. 이듬해인 2016년,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노동법안을 이슈화하면서 밀어붙였지만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참패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거듭된 실정과 국정농단으로 인해 탄핵되면서 임기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메르스 사태는 박근혜 정부 몰락의 전조였던 셈이다.

2020년 신종 전염병인 코로나19는 메르스보다 더 큰 충격을 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비록 시간차는 있지만 메르스 사태의 전개와 코로나19는 상당히 유사하다. 경자년 4월에는 국회의원 총선거가 예정돼 정치권의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국회뿐만 아니라 노정관계가 새롭게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1월 김동명 위원장을 선출하면서 새 지도부 체제를 갖추었다. 노사정 관계 변화가 예상된다. 이런 변수들은 경자년 노사관계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그렇다면 올해 노사관계를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

‘코로나 19’대응에 나선 양대 노총

흑사병은 유럽의 봉건제도를 무너뜨리는 결정적 원인이었다. 14세기 유럽 인구는 7,500만명이었는데 흑사병이 확산되자 3분의 1로 줄어들었다. 인구가 줄면서 노동력이 부족해지자 중세 유럽의 근간을 이루는 장원제도는 더이상 유지될 수 없었다. 봉건제도 몰락의 신호탄이 됐다.

반면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 19’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대처는 신뢰를 얻고 있다는 평이다. 코로나19의 진앙지인 중국뿐만 아니라 대규모 전파지인 대구지

역을 봉쇄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렴하지만 정확한 검사 방식과 진단 확대, 투명한 확진자 동선 공개, 낮은 사망률 등이 다른 국가들로부터 호평을 받았기 때문이다. 물론 마스크 사재기로 인한 공급부족과 5부제 실시에 대한 거부감, 빠르게 악화된 체감 경기로 인해 민심은 그야말로 폭풍전야이다. 게다가 세계보건기구(WHO)의 세계적 대유행(팬데믹) 선언에 이어 뉴욕 월가의 마이너스 증시, 조금씩 성장률이 낮아지는 중국 경제는 세계 경제를 침체의 늪에 빠뜨렸다. 미·중 무역 갈등과 한·일 갈등에서 벗어나 도약의 해로 상정한 한국 경제

는 올해 반등의 발판을 만들려 했지만 되려 미궁에 빠져버렸다. 어떻게 돌파해야 할까. 세계 경제가 코로나 19의 긴 터널을 빠져나올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한국의 경우 코로나 19에 모범적으로 대응하는 나라로 평가받지만 상황이 쉽게 호전되지는 않고 있다. 산업현장에선 코로나19를 계기로 변칙적인 휴직과 해고가 속출하고 있다. 전염병은 산업현장의 고용불안이라는 변종을 만든 셈이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에 노사정이 공동대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것은 재난 극복의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10일 공동성명을 내고 코로나19 확산에 대해 공동의로 안전망 강화, 제도개선·국민캠페인과 모금운동에 함께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산하 산별조직과 정부부처 간 활발한 협의를 제안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노동자 피해 해결과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정협의 TF’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코로나 19에 관한 노정의 대응은 이후 노사관계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동대응 과정에서 신뢰가 형성되면 탄력시간 근로제, 인가 연장근로제 확대 등 노동시간단축 후퇴 논란 이후 소원했던 노정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

국회의원 총선, 정국 변화를 이끌까

21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민심은 여와 야 가운데 어느 손을 들어줄까. 20대 총선에서 예상을 깨고 여당인 새누리당이 참패했다. 여소야대 국회가 개막되면서 정국이 요동쳤다. 선거법을 개정하면서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는 선거 승리의 핵심 열쇠로 부각했다. 미래통합당이 위성 비례정당을 창당한 데 이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비례연합당을 고려하고 있다. 정의당 등 군소정당은 반대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런 양상으로 인해 21대 총선 이후 여야 간 갈등이 더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양대 노총은 이번 총선에서 노동이슈를 부각하고, 우호적인 정당들과 의원들을 확대하는 계기로 여기고 있다.

양대 노총은 선거 이슈로 근로기준법 전면 확대를 내걸고 있다. 한국노총은 ■5명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1년 미만 근속 노동자 퇴직급여 보장을 요구한다. 여기서 숫자를 따서 5·1 플랜을 제안했다. 또한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노조 할 권리 보장에서 글자 ‘플’과 ‘랜’을 따서 만들었다. 민주노총은 5명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노조 할 권리 보장을 묶어 ‘전태일법’을 요구하고 있다. 양대노총은 근로기준법 전면 확대를 뼈대로 공통의 요구안을 제시한 셈이다.

문제는 코로나 19 사태 이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나 거대야당인 미래통합당의 21대 공약사항이 실종하고 있는 점이다. 양 당 모두 노동공약을 이슈화하지 않으며, 되레 후퇴하는 공약을 제기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이런 추세를 반전해야 하는 과제를 갖게 됐다.

지도체제 정비한 노동계, 반전의 계기 만들까

한국노총은 지난 1월 김동명-이동호 호를 띄웠다. 새 한국노총 수장에 김동명 위원장을 선출하고, 집행부의 진용도 일신했다. 김동명 위원장과 이동호 사무처장은 제1노총의 지위를 회복하고, 강력한 조직 확대 운동을 벌이겠다고 공약했다. 김동명 집행부는 당선 이후 민주노총을 방문해 정부여당의 노동시간 단축 후퇴에 맞서 양대 노총의 연대를 복원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대폭 확대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시행 등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를 무력화하는 조치에 양대 노총의 공조가 강화되는 셈이다. 새 지도부를 갖춘 김동명 한국노총 집행부와 임기 마지막 해인 김명환 민주노총 집행부가 어느 정도 시너지를 낼까.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노동이슈가 묻힌 가운데 양대 노총 지도부는 반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까. 한 노동전문가의 제언은 양대 노총이 귀담아 들어야 할 것 같다.

“21대 총선이 다가왔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노동공약을 외면하고, 자유한국당은 노동시간 유연화와 노조특권을 없애는 과거 노동정책 부활을 예고하고 있다. 노동공약 화두를 살리기 위해서는 양대 노총이 힘을 모으고, 시민사회와 전문가도 힘을 보태야 한다.”

코로나19 관련 노동관계법 주요 Q&A

코로나19 사태로 휴가나 재택근무 등 업무 변경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여러모로 헷갈리시죠? 노동관계법을 통해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가장 핵심적인 질문과 답을 8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Q&A

1 사업장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여 소독·방역 등으로 불가피하게 휴업을 실시하면, 휴업수당이 지급될까?

난 일하고 싶은데.

회사는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대.

2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휴업을 실시한다면 휴업수당이 지급될까?

자체 실시

사용자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죠.

다만 근로자 생계보호를 위해 자발적 유급 처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건당국에 의해 입원·격리되어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유급휴가 부여.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비·생활지원비 제도

구분	유급휴가비	생활지원비
지원대상	격리자에 유급휴가 제공 사업주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자
지원수준	개인별 일급 : 1일 13만원 상한	긴급복지지원액 : 4인가구 123만원
신청처	국민연금공단 지사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

휴업수당 지급액은 평균 통상임금의 70% 이상입니다.

통상임금

70% 지급

휴업수당

■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 가능. 단,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70% 미만(무급 포함)의 휴업수당 지급 가능.

3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있나? 근로조건 변경은 개별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에 반영된 동의를 얻어야 함. 변경된 근로조건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무효.

회사는 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키거나 강요할 수 없어요.

임금

5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 요청을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상황을 이유로 반려할 수 있나? 인원 부족, 휴가청구일 집중 등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 시기 변경 가능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해요.

연차유급휴가

7 현재 희망자는 재택근무가 가능한데, 특정 부서나 근로자에게는 희망여부를 묻지 않거나 출근하게 하는 경우 문제가 되나? 재택근무 관련 사항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단체협약에 명시된 경우, 사업장은 이를 준수해야 함. ■ KT노조는 2월 25일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단계 격상에 따른 대응계획>에 명시함.

OK

아하~ 이제 확실히 알았네요. 아무튼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4 코로나19의 여파로 회사가 권고사직을 요구할 수 있을까? 임금삭감이나 권고사직을 근로자가 수용하지 않음을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

회사는 권고사직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권고사직

6 코로나19 문제를 이유로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 있나? 방역당국의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휴업이 아니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함

확진자 동선과 겹치니까...

연차유급휴가는 회사의 강제로 사용될 수 없죠.

8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휴업 또는 휴직 후 퇴직할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방법은?

코로나19 관련 휴업·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대상서 제외

■ 휴업·휴직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최종 근무일까지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

제외

근무기간 **코로나19 휴업 휴직**

예방수칙을 잘 지킨다면 다 같이 잘 이겨내리라 믿습니다. KT 파이팅~!!

고객의소리

가입문의 | 1577-1555 www.daonplan.com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90